

1주차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1)

최근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과학 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텄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과학 운동이다.

신과학 운동의 또 다른 뿌리는 20세기의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다.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분자, 원자를 거쳐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마침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속도와 위치가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세기적인 대논쟁을 벌였다. 그 때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양자 역학은 계속 발달하여 현대 물리학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신과학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뉴턴 이래 300 년간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결정론적 인과율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은 존립할 기반을 상실하였다.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 보고,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기계의 최소 부품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밝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환원적 접근법 대신에 전체를 파악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1. ㉠의 논리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인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 ④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하고 있다.
- ⑤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신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 ② 신은 자연 법칙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③ 인과율에 따라 우주는 움직인다.
- ④ 입자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⑤ 자연에는 우연적 요소가 많다.

3.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는 4 개의 염기가 이중 나선으로 연결된 것이다.
- ② 컴퓨터를 알려면 반도체를 알아야 한다.
- ③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다.
- ④ 중금속, 농약, 세제 등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일어난다.
- ⑤ 민족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 윗글에서 현대 문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① 무분별한 자원 이용
- ② 과학 기술의 발달
- ③ 지구 환경 오염
- ④ 기계론적 세계관
- ⑤ 현대 물리학의 탄생

5. ㉢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 ① 관찰하고
- ② 간주하고
- ③ 예상하고
- ④ 인지하고
- ⑤ 수용하고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1)

(가)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
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팔십 리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A]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산수갑산(三水甲山)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김소월, 「산」 -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百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쫓이리
라.

- 유치환, 「생명의 서(書)」 -

(다)

폭포(瀑布)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실사이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6. (가)~(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
- ②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되었다.
-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구사하지 않았다.
- ④ 처음에 배경을 제시하고, 끝에서 시인의 삶을 나타냈다.
- ⑤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기 위하여 민요조 리듬을 변용했다.

7. (가)의 [A]에 보이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②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③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고개
-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없는 날이여.
- ⑤ 아카시아 어린 잎사귀가 피어나는 산모퉁으로
나는 혼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역시 혼자였었다

8.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의 세계를 동경한다.
- ②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③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④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

9.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어를 (다)에서 찾는다면?

- ① 폭포(瀑布) ② 물결
- ③ 밤 ④ 소리
- ⑤ 번개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2)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 1차 세계 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 추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 데서 짝이 뒀다고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는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은 그들 나름대로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 3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발판삼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달성키 위해 몸부림쳐 왔다. 그리하여 지난 반세기의 세계사의 역정은 이들 세계가 엮어내는 공생과 갈등의 대파노라마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 추이를 되돌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중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 3 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거대 이론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랄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대 혹은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현대(포스트모던)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사상적인 방향의 징표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말 그대로 20세기의 황혼에서 세기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미래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제 3세계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나타났다.
- ② 현대 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는 절망적이다
- ③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이 대중 사회의 출현을 앞당겼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가 거대 이론을 낳았다.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둘 다 관료 조직화된 사회이다.

11. 윗글의 핵심 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주의 체제의 폐해
- ② 탈산업사회의 도래
- ③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 ④ 대중 사회의 출현
- ⑤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

12. ㉠, ㉡ 을 문맥에 맞도록 바꾸어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추세(趨勢) | 동태(動態) |
| ② 이행(移行) | 궤도(軌道) |
| ③ 상황(狀況) | 여건(與件) |
| ④ 위세(威勢) | 위상(位相) |
| ⑤ 경향(傾向) | 행태(行態)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2)

(가)

님이여, 당신은 백 번(百番)이나 단련한 금(金)결입니다.

㉠ 뿔나무 뿌리가 산호(珊瑚)가 되도록 천국(天國)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결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거웁고 황금(黃金)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福)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光明)과 평화(平和)를 좋아하십니다.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慈悲)의 보살(菩薩)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 바다에 봄바람이여.

- 한용운, 「찬송(讚頌)」-

(나)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 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千年)이 지나도 눈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쭉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렵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웃자락은, 눈물 어린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千年)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다)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의 파랑새처럼 여린 목숨이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길을 도와 주는 머슴이 되자.

그는 살아가고 싶어서 심장이 팔뜨닥거리고 눈이 눈물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없어질 실재도 아닌 것이다.

그는 저기 태양을 우러러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어여쁘고 싶은 목숨인 것이다.

어여쁘고 싶은 그의 목숨에 꼬나풀이 되어선 못쓴다.

당길 힘이 없으면 끊어 버리자.

그리하여 싶으도록 걸어가는 그의 검은 눈동자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는 다만 나와 인연이 있었던

어여쁘고 깨끗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정한 몸알일 따름.

그리하여 만에 혹 머언 훗날 나의 영역이 커져

그의 사는 세상까지 미치면 그뻔

순리로 합칠 날 있을지도 모를 일일꺼며.

- 신동엽,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13. (가)~(다)에 나타난 서정적 자아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적 죽음을 예감(豫感)함.
- ②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봄.
- ③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함.
- ④ 사랑의 성취를 낙관(樂觀)함.
- ⑤ 화해(和解)의 세계를 열망함.

1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물을 통하여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지와 염원이 나타나 있다.
- ③ 시적 진실은 과학적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 ⑤ 자기 신념의 확고함이 드러나 있다.

15. (나)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시어는?

—〈보 기〉—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양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일 수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랏빛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 ① 이끼 ② 촛불
- ③ 한숨 ④ 옷자락
- ⑤ 비바람

16. (다)의 시어 중 지시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유일한 사람 ② 머슴
- ③ 나 ④ 끈나풀
- ⑤ 정한 몸알

빠른 정답 - 1주차

[1~5] 1994. 수능 1차				
1	2	3	4	5
②	③	⑤	④	②

[6~9] 1994. 수능 1차			
6	7	8	9
①	③	③	③

[10~12] 1994. 수능 2차		
10	11	12
⑤	⑤	①

[13~16] 1994. 수능 2차			
13	14	15	16
⑤	④	②	⑤

2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 수능

(가)

역사가 옛날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사회보다도 컸던 것 같다. 사회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과 정치가 현대와 같은 복잡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므로, 마치 사회는 개인을 위해 있으며, 개인이 사회를 주인들인 것같이 생각되어 왔다.

(나)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인보다도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영국을 출발점으로 삼는 산업 혁명은 경제의 사회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사회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다)

19세기 중엽에 탄생된 여러 계통의 사회 과학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 중심 체제로 변한 것을 실감케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가 그 부수적인 현상같이 느껴졌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중심이 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부분들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든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부터 그 성격이 점차 ㉠ 굳어졌다. 실제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때의 '우리'라 함은 정치, 경제 등의 집단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라)

현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정당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전부이며 개인은 의미가 없다든지,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도 모두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속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발견하며,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을 발견한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깊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생각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원자와 물질의 역학적 관계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원자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이 없다면 원자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존재성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다 설명될 수는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세포와 유기체의 관계와 같이 생각한다. 생명적 존재를 위한 생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스펜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존재나 생성의 과정에 그치지 않는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면서 생성하며, 생성하면서 문화

역사를 창조해 가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발전과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1. 각 단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다) —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라) — 글쓴이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주장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2.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개인, 사회, (), ()

- ① 중심, 발전 ② 발견, 창조
- ③ 현대, 비약 ④ 관계, 상호 작용
- ⑤ 주인, 변증법적

3.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 ② 한번 굳어진 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 ③ 내가 협조를 거절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 ④ 너무 당황하니까 혀가 굳어져 말이 잘 안 나온다.
- ⑤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아서 머리가 굳어진 것 같다.

4. (라)의 내용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두 관점은 개인을 의미 없다고 본 것도 아니며, 개인이 절대적이라고 본 것도 아니다. 자신이 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을 확대 해석해 놓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②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말에는 개인은 철두철미하게 사회적 존재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 있다.
- ③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중요한 할 일이 많아 있는데 개인과 사회의 문제 따위나 생각하다니, 이런 문제보다는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루어야 한다.
- ④ 개인과 사회를 논하면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끌어들이 필요가 있는가? 우리 역사에도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그들을 빌려 논의해야 한다.
- ⑤ 사회에 속하는 개인들은 매우 복잡한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 간의 상호 관계가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본질이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런 빛도 던져 주지 못한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 수능

(가)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지면서 나가 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옷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별 드는 방이 ㉠ 아내 방이요, 별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불평이 없다.

(나)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 놓고, 열어 놓으면 들어 비치는 별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 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 가미*를 끄실러 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 관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 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끄실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는, 고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이 싫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다)

이 장난도 곧 싫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고 고 가지 각색의 ㉣ 화장품 별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의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수얼한 향기가 꽤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막고 생각해 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내음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중략)

(라)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별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치까치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늘 흐늘한 공기에 다 — ㉤ 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 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형겅이나 메밀 껌질로 평평찬 한 덩어리 ㉥ 배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 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웁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마)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 나는 꾸지람이 무섭다느니 보다도 성가졌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 이상, 「날개」 -

*지리가미 : '휴지'의 일본어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심경이 드러나고 있는 단락은?

—〈보 기〉—

이상(李箱)의 「오감도」가 신문에 발표되자, 정신병자가 아니냐는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이상(李箱)은 이렇게 말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깜빡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어쨌든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면서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6. 작중 인물 '나'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있다.
- ② 자기 아내와 대화하고 있다.
- ③ 일상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 ④ 이불 속에서 몽상을 하고 있다.
- ⑤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하고 있다.

7. ㉠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자아가 억압되는 공간
- ②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
- ③ 현실을 극복하는 공간
- ④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 ⑤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공간

8. ㉠~㉣ 중, '나'를 형상화한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 수능

지붕은 집이 위치하는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지붕의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지역의 기후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크기는 처마의 깊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처마의 깊이는 처마 폭에 의해 결정되는데, 처마 폭은 도리로부터 지붕 끝까지의 너비를 말한다. 처마가 깊다 깊지 않다 하는 것은 기둥의 높이에 비해 처마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하여 하는 말이다.

처마를 깊게 잡는 구조는 우리나라 건축의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태양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 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 대략 북위 38도선 부근에서의 하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약 70도의 각도를 지닌다. 중천에 뜬 태양이 이글거리며 피약별이 쏟아진다. 그러나 깊은 처마가 차양이 되어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에, 방안이나 대청에서는 나무 그늘 밑에서와 같은 시원함과 청량감을 느끼게 된다. 동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대략 35도 가량이다. 낮게 뜬 해가 따뜻한 햇살을 방속 깊숙히 투사하여 준다. 따뜻해진 공기는 깊은 처마의 삼각상대에 머무른다. 방의 열을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삼각상대의 따뜻한 온기가 상당한 저항 작용을 하여, 그만큼의 훈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처마를 깊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건축 자재의 취약성과 생활 관습을 들 수 있다. 목재가 집을 짓는 자재의 중심이 되던 시절에는 습기에 약한 목재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낙숫물이 튀어 나무에 닿지 못하도록 처마를 깊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농사를 짓는 데는 깊은 처마가 필요하였다.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일차적인 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업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마는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이렇듯이 자연 여건 및 생활 관습이 반영된 처마는 우리나라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농가의 자그마한 살림집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규모가 큰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깊은 처마를 가지게 되었다. 기와 지붕은 초가 지붕의 구성에서 발달한 것이며, 처마 구성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곡선 모양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형태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옥의 특징을 건축 방식과 관련하여 드러낸다.
- ② 한옥의 건축 자재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③ 처마의 특징을 환경 및 생활양식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 ④ 한옥의 지붕이 가지는 특징을 종류에 따라 설명한다.
- ⑤ 처마 양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한다.

10.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경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② 집의 규모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 ③ 집을 짓는 주된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이다.
- ④ 그늘을 만들어 주고 비를 막아 주기 때문이다.
- 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지붕의 곡선은 처마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 ② 지붕의 형태는 생활의 필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 ③ 지붕의 구성 재료에 따라서 보온 상태가 달라진다.
- ④ 지붕의 크기는 소유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⑤ 지붕의 치장은 건물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 수능

[아니리]

“어, 차마 못 보겠다. 내가 어사 된 것이 선영 덕택인 줄 알았더니, 예 와 보니 춘향 모 정성이 반이나 되겠구나. 저러헌 형상에 이 모양으로 들어가면, 저 늙은이 성질에 괴변이 날 테니 잠시 숙일 수밖에 없지.”
어사또가 춘향 모를 속여 부르는데, 꼭 이렇게 부르겠다. “이로너라, 이로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가]

춘향 모 울다가 깜짝 놀라,
“향단아, 이것이 뭘 소리다냐?”
향단아도 어찌 놀랐던지,
“비 올라고 천둥형개비요.”
“너의 애기씨 들어가시게 되니, 성조 지신이 발동을 하였는가, 어느 놈이 술 담뱃 먹고 와서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허는지, 나가서 좀 보고 오너라.”

(중략)

[중모리]

어사또 목이 매여 춘향 손을 ㉠ 부여잡더니 눈물이 듣거니 뺏거니,

“네가 이것이 웬일이냐. 부드럽고 곱던 손길이 피골(皮骨)이 상연(相連)쿠나.”

㉡ “나는 이게 내 죄요마는, 서방님은 웬일이요?”

“나도 역시 팔자로다.”

“서방님을 잠시라도 뵈오니 이제 죽어 한이 없나이다. 내일 본관 사또 생신 잔치 끝에 나를 올려 죽인다니, 서방님은 먼데 가지 말고 옥문 밖에 서졌다가, 날 올리라 영(命)이 내리거든 ㉢ 칼머리나 들어 주어. 나를 죽여 내어 놓거든 다른 사람손대기 전에, 짝군인 체 달려들어 나를 업고 물러나와, 우리 둘이 인연 맺던 부용당(芙蓉堂)에 나를 누이고 서방님 속옷 벗어 입혀 주고 나를 묻어 주되, 신산(新山) 구산(舊山)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선대감(先大監) 제절하(除節下)에 ㉣ 은근히 묻어 주고, 정조 한식(正朝寒食) 단오 추석 선대감 시제(時祭) 잡순 후, 주과포혜(酒果脯醢) 따로 차려 놓고 술 한잔 부어 들고, 나의 무덤에 우에 올라 서서 발 툭툭 세 번 구르고, ‘춘향아’ 부르시고, 청초(靑草)는 우거진디 앓았느냐 누웠느냐? 내가 와 주는 술이니 ㉤ 퇴(退)치 말고 많이 먹어라.’ 그말씀만 하여 주오. 그 말밖에 할 말 없오.”

어사또 목이 매여 눈물이 ㉥ 듣거니 뺏거니,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이에 춘향아, 우지 마라. 상여(喪輿) 탈지 가마를 탈지 그것이야 누가 알겠느냐마는, 천붕우출(天崩牛出)이라 하였으니 솟아 날 굽기가 있느니라. 오늘 밤만 죽지를 말고 내일 날로 상봉하자.”

[아니리]

“춘향아, 내가 너더러 할 말이 있다마는…….”

춘향 모 이 말 듣더니,

㉦ “자네 누구 뻔세 말 못 허는가, 나 있다고 말 못허는가?”

“향단아, 마나님 잘 모시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서방님, 마나님 하시는 말씀 곡해(曲解) 마시고 집으로 가사이다.”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불일이 있어 같이 못 가니, 내일 아침이나 잘 지어 놓아라.”

향단아와 춘향 모는 울며불며 집으로 돌아가고, 어사또는 객사(客舍)로 들어가 거사(擧事) 할 일을 생각할 제 날이 차차 밝아 오니,

(하략)

- 정정렬 판, 「춘향가」 -

12. 윗글에 드러난 춘향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뉘우친다.
- ② 더 살기를 단념한다.
- ③ 모친의 안부를 걱정한다.
- ④ 모든 것을 사회 탓으로 돌린다.
- ⑤ 이 도령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다.

13. [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를 바꿈으로써 조바심을 갖게 한다.
- ② 해학을 통해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킨다.
- ③ 함축적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한다.
- ④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극적 흥미를 유발시킨다.
- ⑤ 방언을 구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게 한다.

14. ㉦을 근거로 춘향의 인물됨을 판단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야말로 자기희생적인 여인이자, 자기의 처지보다 이 도령의 신세를 걱정하고 있잖아.
- ② 춘향이야말로 정절의 여인이자, 이 도령과의 사랑을 위하여 본관 사또의 명을 거역하고 있잖아.
- ③ 춘향이야말로 현실적인 인물이지, 이 도령의 몰락한 모습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잖아.
- ④ 춘향이야말로 심성이 고운 인물이지, 이 도령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
- ⑤ 춘향이야말로 의지가 강한 인물이지, 이 도령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을 믿고 있잖아.

15. ㉞의 어조로 적절한 것은?

- ① 은근하게 ② 반기면서
- ③ 슬피하면서 ④ 기대에 차서
- ⑤ 못마땅해 하며

16. ㉠~㉥의 뜻풀이로 바른 것은?

- ① ㉠ — 살며시 잡더니 ② ㉡ — 칼자루나 잡아 주오
- ③ ㉢ — 남몰래 물어 주고 ④ ㉣ — 물러서지 말고
- ⑤ ㉥ — 나올 듯 말 듯

빠른 정답 - 2주차

[1~4] 1995. 수능			
1	2	3	4
④	④	②	①

[5~8] 1995. 수능			
5	6	7	8
⑤	②	④	⑤

[9~11] 1995. 수능		
9	10	11
③	②	②

[12~16] 1995. 수능				
12	13	14	15	16
②	②	①	⑤	③

3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 수능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조각이 상징하는 그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고대의 조각품을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觸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성함', '거룩함' 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19세기 초 지중해 연안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미로의 비너스' 상이 좋은 사례가 된다. 발견 당시 이것은 굴 안의 북쪽 벽 앞에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단으로 보이는 큰 돌 주위에 토기(土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로 미루어 그리스 시대의 인체조각상은 동양의 불상처럼 신정에 모셔졌으며,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조각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의 조각품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조각상에 나타난 그들의 인체 탐구 정신은 지극히 사실적(事實的)이면서도 이상화(理想化)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서구 미술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자연물이 표현의 주된 대상이었던 데 반하여, 서구에서는 자연물보다는 주로 인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 많은 소재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비례가 있는데, 이 비례가 만물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미술가들이 누드를 평생의 소재로 삼게 한 불후(不朽)의 사상인 것이다.

한편, 동양의 화가들은 유구한 세월 동안 산·물·나무·동물·곤충·꽃 등과 같은 자연의 물상을 단골 소재로 삼았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사생(寫生)이라고 일컬어왔다. 사생은 산수나 화조(花鳥)처럼 자연을 그리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탐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것이다.

동양 미술이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의 미술은 얼핏 보아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정신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 자연은 인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

이 또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동양의 화가들은 자연물의 움직임을 재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 ② 고대의 조각품은 미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③ 동서양의 미술은 표현 방법과 표현 대상이 동일하다.
- ④ 서구의 미술가들은 인체 탐구를 통하여 신이 인체 탐구를 통하여 신이 인간을 창조한 비밀을 찾으려 했다.
- ⑤ 서구의 미술가들은 인간의 욕망을 승화시키기 위해 누드를 평생의 소재로 삼았다.

2.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서구 미술은 동양 미술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 ② 미술은 인체를 탐구하려는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③ 동서양의 고대 미술은 모두 종교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고대 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화특성을 알아야 한다.
- ⑤ 동서양의 미술은 모두 표현 대상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3. ㉠의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대상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초상화는 생전의 근엄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
- ② 신라인의 얼을 생각하며 석굴암 본존불을 보니, 그 자비로움이 나를 숙연케 해.
- ③ 이 그림 속의 물방울은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아.
- ④ 경복궁 경회루의 우아한 곡선미는 우리 조상의 예술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해.
- ⑤ 미로의 비너스는 두 팔이 잘려 나갔지만, 그리스인의 세련되고 섬세한 솜씨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4. 다음 중 ㉠의 의미를 적절하게 드러낸 것은?

- ①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몇 표주박을 들이키니, 상쾌한 기운이 더위를 씻어 준다.
- ② 봄철이라면 벚꽃이 대단하다. 그것도 겹벚 꽃이다. 벚꽃이 제 아무리 맵시를 자랑해도 개심사 종루(鐘樓) 한 쪽에 서 있는 늙은 매화의 기품을 벚꽃은 가히 넘보지 못한다.
- ③ 빛의 약동! 색의 환희! 만개한 복숭아 꽃, 오얏꽃, 그 새로이 파릇파릇 움트는 에메랄드의 싹들! 섬세하고 윤택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잎들. 회화(繪畵)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 ④ 벌거벗은 나무 끝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지나가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눈 덮인 별판을 차갑게 비쳐 주는 겨울 달빛 사이로 기러기와 청둥오리가 하늘을 비껴 줄지어 날아가면 겨울은 깊어 같다.
- ⑤ 신록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파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 수능

승상이 길동의 모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내 너를 잊지 못하는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돈절하여 사생 존망을 모르니 내 마음에 이같이 사념이 간절하거든 네 마음이야 더욱 측량하라 길동이 녹녹한 인물이 아니라. ㉠ 만일 살아 있으면 너를 저버릴바 없으리라. 부디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말고 안보하여 좋게 지내라.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다.”

하시고 인하여 별세하시니, 부인이 기절하시고, 좌우 다 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길현이 슬픈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눈물이 비오듯하며, 부인을 붙들여 위로하여 진정하신 후에 초상등절(初喪等節)을 예로써 극진히 차릴새, 길동의 모는 더욱 망극 애통하니 그 정상이 잔잉(殘仍)하여 차마 보지 못하더라. 인하여 졸곡(卒哭) 후에 ㉡ 명산지지(名山之地)를 구하여 안장하려 하고 각처에 사람을 놓아 여러 지관을 데리고 산지를 사방으로 구하되 마땅한 곳이 없어 근심하더니, 이 때에 ㉢ 길동이 서강에 다다라배에서 내려 승상택에 이르러 바로 승상영위(靈位) 전에 들어가 복지통곡하더니, 상인이 자세히 보니 이 곧 길동이라. ㉣ 대성통곡 후에 길동을 데리고 바로 내당에 들어가 부인에게 고하니, 부인이 대경대회하여 길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네 어려서 집을 떠나 이제야 돌아오니 석사(昔事)를 생각하면 도리어 참괴한지라. 그러하나 네 그 사이 삼사 년은 종적을 아주 끊어 어디로 갔었더냐? 대감이 임종 시 말씀이 이러이러 하시고 너를 잊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하시고, 그 어머니를 부르시니, ㉤ 그 모 길동 온 줄 알고 급히 들어와 모자 서로 대하니 흐르는 눈물을 서로 금치 못하더라. 길동이 부인과 모친을 위로한 후 그 형장(兄丈)을 대하여 왈,

“소제 그간은 산중에 은거하여 지리를 잠심(潛心)하여 대감의 ㉥ 말년유택(末年幽宅)을 정한 곳이 있사옵더니, 알지 못하겠구나! 이미 소점(所占)이 있사옵니까?”

㉦ 그 형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반겨 아직 정하지 못한 말을 설화(說話)하고, 제인이 모여 밤이 새도록 정회를 베풀고, 이튿날 길동이 그 형을 모시고 한 곳에 이르러 가리켜 왈,

“이 곳이 소제의 정한 땅이로소이다.”

길현이 사면을 살펴보니, 중중한 석각이 험악하고, ㉧ 누누(壘壘)한 고총(古塚)이 수 없는지라. 심내에 불합(不合)하여 왈,

“소제의 높은 소견은 알지 못하되 내 마음은 이곳에 모실 생각이 없으니 다른 땅을 점복하라.”

길동이 거짓 탄식 왈,

“이 땅이 비록 이러하오나 누대 장상지지(將相之地)어늘 형장의 소견이 불합하오니 개탄이로다!”

하고, 도끼를 들어 수 척을 파하니, 오색 기운이 일며 청학한 쌍이 날아가는지라. 그 형이 이 거동을 보고 크게 뉘우쳐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우형의 소견 ㉨ 절언대지(絶言大地)를 잃었으니 어찌 애담지 아니 하리오? 바라나니 다른 땅은 없느냐?”

길동이 가로되,

“이에서 한 곳이 있어도 길이 수천 리라 그것을 염려하나이다.”

길현이 왈,

“이제 수만 리라도 부모의 ㉩ 백골이 평안할 곳이 있으면 그 원근을 취사치 아니하리라.”

한대, ㉪ 길동이 함께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설화하니, 부인이 못내 애달와 하시더라. 날을 가리어 대감 영위를 모시고 섬 중으로 향할새, 길동이 부인에게 여쭙오되,

“소자 돌아와 모자지정을 다 펴지 못하옵고, 또 대감 영위에 조석공양이 난처하오니 어미와 함께 이번 길에 함께하오면 좋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허락하시거늘, 직일 발행하여 서강에 다다르니 제군이 대선 한 척을 대후하였는지라.

- 「홍길동전」 완판본 -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길동은 생모를 모시고 섬으로 떠난다.
- ② 길동의 생모는 첩의 신분을 벗어나 있다.
- ③ 길동의 아버지는 길동을 그리워한다.
- ④ 길동은 부친이 별세한 후 집에 돌아온다.
- ⑤ 길동은 아버지의 영위를 모셔가기 위해 형을 속인다.

6.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 명산지지(名山之地)
- ② ㉡ : 말년유택(末年幽宅)
- ③ ㉢ : 누누(壘壘)한 고총(古塚)
- ④ ㉣ : 절언대지(絶言大地)
- ⑤ ㉤ : 백골이 평안할 곳

7. a~e 중 ㉦의 밑줄 친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실현된 것은?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8. 다음 중 ㉦의 밑줄 친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실현된 것은?

- ① 아바님 가노이다 어마님 댁히 겨오 나라히 부리시니 이 몸을 잊것니다 내년의 이 시절 오나도 기다리 지 마르쇼셔
- ②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흐더 면 가랴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정 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③ 뵈흔 길 고 길고 물론 멀고 멀고 아버지 그린 뜰은 만코 만코 하고 하고 어되셔 외기러기는 울 고 울고 가느니
- ④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회옵고 내 마음 들 되 업서 냇궤에 안즈이다. 저 물도 내 안 궤도 다 우리 밤길 네늦다.
- ⑤ 심산(深山)의 밤이 드니 북풍이 더욱 차다 옥루고처(玉樓高處)에도 이 바람 부는게오 긴 밤의 치우신가 북두(北斗) 비겨 바리로라.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 수능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 샘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9. 윗글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과학'과 '철학'의 대비적 속성을 짚 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	철학
① 지식(知識)	지혜(智慧)
② 분석(分析)	종합(綜合)
③ 사실(事實)	가치(價値)
④ 기술(記述)	해석(解釋)
⑤ 현존(現存)	현상(現像)

10.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자들의 삶은 무의미하다.
- ② 철학자들은 지혜와 상식을 혼동한다.
- ③ 철학자들은 지식과 기술을 추구한다.
- ④ 철학자들은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⑤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리석게 표현한다.

11. ㉣에서 유추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이 전깃줄이고 과학이 그 전깃줄을 따라 흐르는 전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전등불과 같다.
- ② 철학이 철로를 따라 운행하는 기관차이고 과학이 객차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객차의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여행객과 같다.
- ③ 철학이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는 배이고 과학이 그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다.
- ④ 철학이 자갈밭을 걸어가는 두 다리이고 과학이 앞길을 살피는 두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 다리에 실려 가는 몸통과 같다.
- ⑤ 철학이 광맥을 찾아 나가는 탐사대이고 과학이 그 광물을 채굴하는 광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광물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소비자과 같다.

12. 밑줄 친 ㉤의 내포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종교적 성찰
- ② 철학 자체에 대한 회의
- ③ 진리에 대한 본원적 갈증
- ④ 자기를 포기한 자조적 독백
- ⑤ 자아 탐구의 본능적 욕구

13. 윗글의 문맥상 '㉡ 샘 : ㉢ 바다'의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싹 : 열매
- ② 빛 : 그림자
- ③ 비 : 구름
- ④ 휘발유 : 자동차
- ⑤ 바위 : 이끼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 수능

김 약국의 고종사촌형인 이증구는 마누라인 윤씨와 단 둘이서 동문 밖의 조그마한 기와집에 살고 있었다. 큰아들 정운은 지난봄에 대구 의전을 졸업하였다. 그는 진주 도립 병원에 취직하고 있었다.

두 내외는 계집아이도 없이 껍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정스럽게 흡족한 노부부다. ㉠ 마누라가 밥을 지으면 영감은 장작을 깨고, 생선 한 마리라도 맛나게 보글보글 지져서 머리 맞대고 의좋게 먹는다. 평생 겸상해서 밥을 먹어본 일이 없는 한실택은 그런 광경을 보면 망측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하였다.

“참말로 천생 배필이제. 하루를 살아도 무슨 한이 있을꼬…….”

젊어서부터 하는 한길택의 말이였다.

중구 영감이 처음 소목일을 하게 된 것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한일 함방 전부터 세상은 어지럽고 매관매직이 횡행하는 풍조 속에서 곳곳하고 오만한 중구 영감은 그만 책을 덮어 버렸다. 그 때는 영락한 선비의 자손들이 어려운 살림을 위하여 남몰래 소목일, 제모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중구도 소목일을 배웠다.

외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워낙 성미가 강직하고 남에게 굴하기를 싫어한 중구는 외가의 도움도 달갑잖게 여겼다. ㉡ 그러나 아들 형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여도 역시 김 약국이 알게 모르게 주는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

㉢ 중구 영감은 이룰테면 예술가 기질 혹은 명장(明匠)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였다. 비록 어쭙쭙은 소목장이었으나 단순한 장인이아치는 아니였다. 그가 만들어 낸 자개장이나 귀목장은 그 의장(意匠)이 특출하였고 견고하기로는 이를 데가 없었다. 죽히 자손에 물린 만한 귀물이였다. 그러나 성미가 까다로워서 뒷일꾼 하나 두지 않고 혼자 일방에 틀어박혀 하는 것이니 한 가지를 끝내는 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돈뿐이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구 영감에게 일을 맡기지 못한다. ㉣ 거기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맡기는 사람이 태도가 불손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딱 거절을 한다. ㉤ 부탁하는 사람이 이래저래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있지만 그 말에 따라 일하는 법도 없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돈 있고 권세 좋은 사람들은 한갓 소목장이 무슨 똥고집이 그리 세냐고 늘 못 마땅히 여긴다. 한 번은 정국주의 마누라가 와서 교자상을 하나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거드름 피우는 꼴이 아니꼬웠던지 코대답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중략)

“큰어머니”

용빈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윤씨를 불렀다.

“누구오? 아 용빈이 아이가.”

윤씨는 절구통 앞에서 무엇을 찜다가 절긋공이를 놓고 쫓아 나왔다. 알뜰한 눈매와 곱슬한 이마머리, 깨끗하게 늙었다.

“용순이도 왔구나. 웬일고?”

“큰아버지 계십니까?”

“운냐, 계신다. 일방에” “요새도 일을 하십니까?”

“하모, 일을 잡으른 사흘 나흘 들어앉아서…….”

용빈과 윤씨가 말을 주고받는데 용숙은 절구통을 기웃이

들여다본다.

(중략)

얼마 후 조출한 저녁상이 들어왔다. 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밥상이 실팍하다. 나물, 자반, 건어, 김치도 깔끔하다.

“보소. 영감, 저녁 안 잡숴랍니까?”

“가요.”

중구 영감은 손을 씻고 허리를 펴면서 마루에 올라왔다.

“용빈이가 가지고 왔습니더.”

윤씨는 매화주를 따르면서 영감에게 알린다. 저녁이 끝나자 “큰 아버지, 함롱 하나 해 주시랍니까?”

하고 용숙은 용무를 꺼내었다.

“누구 거로?”

“지 꺼 하나 할랍니더.”

중구 영감은 힐끗 용숙을 쳐다본다.

“짬이 있어야제.”

“천천히 하시오 괜찮습니더.”

㉥ “김 약국은 요새도 두문불출인가?”

중구 영감은 용숙의 말허리를 꺾어 버린다. 용숙의 얼굴이 별개진다. 눈에 오기가 발끈 솟는다.

“예, 별로 안 나갑니다.”

중구 영감은 담배 한 대를 태우고 그냥 일방으로 내려가 버린다.

- 박경리, 「김 약국의 딸들」 -

14. ㉠~㉥ 중, 중구 영감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의장(意匠)의 뜻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예품의 예술성
② 공예품을 만드는 솜씨
③ 공예품에 달린 장식(裝飾)
④ 공예품의 외적 모양이나 색채
⑤ 공예품에 짓든 장인(匠人) 정신

16.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에 나타난 중구 영감의 진의(眞意)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숙을 믿을 수 없다.
② 용숙의 부탁을 무시한다.
③ 김 약국의 근황이 궁금하다.
④ 김 약국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⑤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 없다.

17.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 때 촬영할 만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가에서 도움을 받을 때 중구 영감이 불편해 하는 장면
- ② 정윤이 대구 의전을 다닐 때 김 약국이 도움을 주는 장면
- ③ 중구 영감이 자개장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흥정하는 장면
- ④ 중구 영감이 일방에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소목일을 하는 장면
- ⑤ 중구 영감이 소목일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목수를 찾아가는 장면

18. 윗글에 대한 감상을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중구 영감과 정국주 마누라 사이의 갈등이 빈부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더 연구해 보겠다.”
- ② “나는 한실댁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낡은 관습으로 인해 여성이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 ③ “나는 특히 대화 부분을 읽으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효과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 ④ “나는 중구 영감이 지닌 전문성과 자부심에 주목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을 더 생각해 보겠다.”
- ⑤ “나는 선비의 자손들이 소목일을 남 몰래 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신분 질서가 붕괴되고 체면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

빠른 정답 - 3주차

[1~4] 1996. 수능				
1	2	3	4	
④	⑤	②	⑤	

[5~8] 1996. 수능				
5	6	7	8	
②	③	③	③	

[9~13] 1996. 수능				
9	10	11	12	13
⑤	④	⑤	③	①

[14~18] 1997. 수능				
14	15	16	17	18
②	④	②	③	①

4주차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 수능

한국인의 전통적 명분관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나 상하의 식에 따라 각각의 분수를 지키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계층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판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명분론의 성격을 ㉠ 지니고 있다.

[A] 계층적 명분관은 사회 내에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가령,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고부(姑婦)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성격에 따라 각자에게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가족적인 질서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분관에 따라 부모의 도리나 자식의 도리 또는 임금의 도리나 신하의 도리 등, 각자 지켜야 할 도리가 명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명분은 위 아래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 명분이 계층적이라 하여, 이것이윗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억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억압적인 현상은 힘 있는 강자가 명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전통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아래의 구성원이 각각 그 역할에 따라 명분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결속을 확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명분을 앞세워 억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명분론은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보적 요구를 억누르는 보수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계층적 명분관은 근대로 내려오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고 붕괴함에 따라 점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도전과 모험의 진취적 태도를 부정하는 의식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도덕적 명분관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정의감이나 용기를 뒷받침한다. 즉, 불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가 타협을 거부하는 선비의 강직한 정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 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적 명분은 공동체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된 비판 의식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당쟁(黨爭)은 경직된 명분론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덕적 명분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명분의 형식화와 체면치레가 성행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측면이 소홀히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성리학적 의리에 집착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가 만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 실용적 관점에서 의리론적 명분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견해를 당시 실학자들의 저술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층적 명분관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평등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나 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오늘의 시민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제 정의의 실천이나 민족 통일 등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 시대의 구체적 과제가 현실적 조건에 따라 특수한 명분을 제시하여 우리를 제약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도덕적 명분관은 현대 사회에서 설 땅을 잃었다.
- ② 계층적 명분관은 개인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 역사는 명분론적 세계관을 극복해 온 과정이었다.
- ④ 명분론의 변화와 현실 인식의 변화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 ⑤ 계층적 명분관과 도덕적 명분관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을 가진다.

2. [A]에서 제시한 계층적 명분관이 적용된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오직 그 출생 계보만을 따져 백대까지도 노비로 만든다면 설령 훌륭한 인재가 노비 사이에 태어난다 해도 역시 남의 노비가 되고 마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 ② 하늘로 말하자면 양은 강직하고 음은 유약하며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거늘, 어찌 여자로 하여금 규방에서 나와 나라 일을 재단케 하겠는가.
- ③ 군주에게 예를 지키는 이를 보거든 마치 효자가 자기 부모를 모시듯 섬기고, 군주에게 무례한 이를 보거든 사나운 매가 새를 쫓는 것처럼 내쳐야 한다.
- ④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로운 것이니, 옛날의 밝은 임금은 자기를 비우고 신하에게, 정사(政事)를 물었으며 안색을 부드럽게 하여 충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 ⑤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히 곁에 떠나지 않고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이며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르치어 나쁜 데로 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3. ㉡이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힘 있는 강자도 명분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② 억압적인 현상은 일상의 현실에서 드물지 않다.
- ③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
- ④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명분이 존중되어야 한다.
- ⑤ 강자의 억압적인 행위는 명분을 짓밟는 경우가 많다.

4. ㉠을 드러낸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 버릇 개 줄까.
-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③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 ④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붙은 안 쫓는다.
-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 ㉡의 예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나라를 위하여 복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장차 말타고 달리면서 칼로 치고 활을 쏘며 싸움할 생각이면서 자기의 넓은 옷소매는 고치지 않는다.
- ② 하늘이 사람을 낸 것은 편히 앉아 놓고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곡식과 누에는 초목이나 곤충과는 달리 밭을 갈고 먹이를 주어야만 열매를 맺고 고치를 만드는 것이다.
- ③ 수령이 곡물을 장사하고 세금을 도적질하며 자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에게 가장 우수한 성적을 매겨서 임금을 속이니 이야말로 큰 도적이다.
- ④ 부모의 병환에 약을 달여 드리는 것은 효도이나 자기 살을 베어 먹여 몸을 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니, 만약 이것이 의리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성현들께서 먼저 행하였을 것이다.
- ⑤ 힘으로 다스릴 때는 비록 억만의 백성이 있을지라도 제각각의 생각을 갖지만 도덕으로 교화할 때는 열 사람의 정성이나마 생각이 같을지니, 보국안민의 계책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6. 다음 중 밑줄 친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소유(所有)하고
- ② 소지(所持)하고
- ③保重(保重)하고
- ④ 보전(保全)하고
- ⑤ 유지(維持)하고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 수능

양 상서(楊尙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후로 승전보가 계속 날아오자 황제께서 태후를 뵙고 양 상서의 공을 칭찬하여 가라사대,

“양소유의 공은 광분양* 이래 제일인이라. 돌아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승상을 시키려니와 오직 어매(御妹)*의 혼사를 오히려 정하지 못했으니,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면 매우 좋겠으나 만일 다시 고집하면 공신(功臣)을 매양 죄주기도 어렵고 달리는 처치할 길이 없으니 이로써 염려하나이다.”

태후 가라사대,

“내 들으니 정씨 여자 매우 곱다 하고 양 상서와 서로 보았다하니 상서 어이 즐겨 버리리요. 상서 나간 때를 타 정가(鄭家)에 조서(詔書)를 내려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함만 같지 못하도다.”

황제께서 침음하여 결정하지 못하시다가 가시거늘, 이때 난양 공주 태후를 모셨더니,

“낭랑(娘孌)*의 말씀이 도에 어긋나오니 정씨 여자를 다른 집안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조정에서 지휘할 일이옵니까?”

태후 가라사대,

“이 일은 너의 종신대사(終身大事)이니 본디 너와 의논하고자하더니라. 양 상서의 풍류와 문체는 조정 신하 중에 비할 이 없을뿐더러 통소 한 곡조로 인연을 접지 받은 지 오래니 결코 양상서를 버리고 타인에게 구혼은 못할 것이오, 상서와 정씨 여자의 혼인 논의가 평범한 것이 아니고 정분이 중하여 서로 버리지 못할 듯하니 이 일이 극히 난처한지라. 내 뜻에는 상서가 조정에 돌아오면 너와 혼인한 뒤에 정씨 여자로 첩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면 상서 말이 없을 듯하되 다만 네가 원치 아닐까하노라.”

공주 아뢰되,

“소녀는 평생토록 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이 정씨 여자를 용납지 못하리이꼬, 다만 양 상서가 처음에는 처로 폐백을 들였다가 뒤에 첩으로 취함이 예에 어긋나는 듯하고, 정 사도는 여러 대(代) 재상을 한 집이라 그 딸이 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듯하니 이 일이 마땅치 아닐까 하나이다.”

태후 가라사대,

“이도 마땅치 않으면 네 뜻에는 어찌코자 하나뇨?”

공주 아뢰되,

“제후(諸侯)에게는 세 부인이 있다고 했으니, 양 상서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크게는 왕이 되고 적어도 제후라, 두 부인을 둘이 외람치 아닐 듯하니 이로써 정씨 여자를 허락함이 어떠하나이꼬?”

태후 가라사대,

“이는 불가하니, 같은 여염집 여자는 한가지로 부인이 됨이 방해롭지 아니하거니와 너는 바로 선제(先帝)의 끼치신 몸이라, 하물며 상이 사랑하시는 누이요 일신이 가별지 아니하니 어찌여염의 소소한 여자도 더불어 나란히 설 수 있리요.”

공주 아뢰되,

“소녀 또한 소녀의 몸이 존중한 줄 아오되 옛 성스럽고 밝은 제왕(帝王)도 어진 사람을 공경하며 천자(天子)도 필부(匹夫)로 베타한 이 있으니, 소녀 물으니 정씨 여자가 얼굴 재조와 덕이 다 갖추어져 옛사람에게 내리지 아니리라 하니, 진실로 그러할진대 저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함이 무슨 혐의 있으리 이꼬, 비록 그러하나 전문(傳聞)이 실상에 지

나기 쉬우니 소녀의 뜻에는 아무 길로나 정씨 여자를 보아 용모 재덕이 소녀보다 나으면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우리러 섬기려니와, 만일 직접 보아 소문과 같이 못할 양이면 첩으로 삼으나 종으로 삼으나 낭랑의 임의로 처치하소서.”

태후 이 말을 들으시고 차탄(嗟歎)하여 가라사대,

“여자는 본디 남의 재주를 꺼리거늘 너는 남의 재주를 사랑하니 가히 아름답도다. 너의 재덕이 옛 사람에 지나도다. 내 또한 정씨 여자를 보고자 하나니 명일에 당당히 정씨 여자를 불러들여 보리라.”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 광분양 : 중국 당나라 장군

* 어매(御妹) : 황제의 누이

* 낭랑(娘孌) : 공주가 '태후'를 부르는 말

7.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공(戰功)을 세운 양 상서의 포상 문제
- ② 정씨 여자에 대한 태후와 황제의 의견 대립
- ③ 공주의 혼인과 관련된 정씨 여자의 처리 문제
- ④ 여러 부인을 두는 제후(諸侯)의 결혼 풍습 문제
- ⑤ 양 상서와 공주 사이의 원만하지 못한 애정 문제

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채로운 수사로 화려한 느낌을 받게 한다.
- ② 재치 있는 언어 사용으로 미소를 띠게 한다.
- ③ 법도에 맞은 언어를 사용하여 기품을 느끼게 한다.
- ④ 어두운 느낌의 어휘를 사용하여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
- ⑤ 시정(市井)의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질박함을 느끼게 한다.

9. 윗글에서 '공주'가 '정씨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모와 재덕 ② 세상의 평판 ③ 학문적 소양
- ④ 가문의 지위 ⑤ 종교적 배경

10. '공주'에 대한 '태후'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주를 과신(過信)하고 있다.
- ② 공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 ③ 공주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다.
- ④ 공주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 ⑤ 공주에 대한 맹목적 애정을 보이고 있다.

11. 윗글에서 '태후'와 '공주'가 주고받은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후와 공주는 각자의 명분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다.
- ② 태후는 상황 논리를, 공주는 권위를 앞세워 주장하고 있다.
- ③ 태후와 공주는 각자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④ 태후는 인정에 호소하고, 공주는 상식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 ⑤ 태후는 비유를 중심으로, 공주는 증거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 수능

(가)

사회 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바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사회 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개별화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그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부터 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진단해 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은 사회 체제와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시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체제 자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그다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사회 체제 안에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곧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임상(臨床)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세력들 간의 역동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 과정 및 그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사회 복지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대부분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의학, 집단역학(集團力學)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빌려 온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실천 지향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로 이룩된 것들이다. 그 결과 사회 복지 방법론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다루거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과 사회 체제의 관계, 사회적 약자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 체제에 내재해 있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라)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단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기형적으로 발전된 이러한 사회 복지 방법론만 가지고서는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우리는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만으로는 사회 복지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양측으로 하는 사회 복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사회 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2.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 - 사회 복지 방법론의 개념과 유형
- ② (나) -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 차이점
- ③ (다) - 사회 복지 방법론과 인접 학문의 관계
- ④ (라) - 사회 복지 방법론의 현재 상황
- ⑤ (마) -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바람직한 방향

13.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회 복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 ② 사회 복지 방법론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 ③ 미시적 방법론은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 복지의 이념을 실현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④ 사회 복지 방법론 성립에 영향을 미친 학문들은 대부분 임상이나 거시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 ⑤ 현재의 사회복지 방법론은 정책 입안에 관한 문제보다 복지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을 중시한다.

14. 윗글에서 이끌어 낼 수 없는 주장은?

- ①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 ② 사회 복지 전문가는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 ③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 ④ 사회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 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⑤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하여 거시적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5. 거시적 방법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복지 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 ② 사회 복지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
- ③ 사회 정책의 결정 과정을 감시하는 것
- ④ 사회 문제 해결을 국회에 청원하는 것
- ⑤ 사회 복지를 위해 시민 운동을 벌이는 것

16. 윗글에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u>미시적 방법론</u>	<u>거시적 방법론</u>
① 과정	제도
② 기술	지식
③ 이념	실천
④ 임상	정책
⑤ 입안	집행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 수능

(가)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 해의 옅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들어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빛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높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머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욱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기인 독을 거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田園)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보린 까닭이겠습니까.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애기의 잠뎃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이제야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

(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
 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
 (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스 째', '라이넬 마리아 릴
 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우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흠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

17.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꿈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현실 상황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다.
- ④ '어머니'라는 시어는 시적 화자에게 슬픔을 불러 일으킨다
- ⑤ 시적 화자는 자연물들에 대하여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 (가)에서 '촛불'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
 은?

- ① 녹색 침대 ② 조용한 호수
- ③ 높은 산 ④ 검은 치맛자락
- ⑤ 물결 소리

19. (나)의 '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의 불행한 운명을 예언하고 있다.
- ② 시인이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 ③ 시인의 기원을 받아 주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④ 시인과 외부세계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⑤ 시인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20. <보기>는 시 (가)의 첫 연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시를 (나)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과 명상에 젖은 시인의 모습을 연결시킨 표현이다. 이처럼 시에서는 상황이나 심정을 자연대상에 이입(移入)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 ②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 ③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 ④ 어머님, /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 ⑤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빠른 정답 - 4주차

[1~6] 1997. 수능					
1	2	3	4	5	6
④	①	③	③	①	①

[7~11] 1998. 수능					
7	8	9	10	11	
③	③	①	②	①	

[12~16] 1997. 수능					
12	13	14	15	16	
③	④	④	①	④	

[17~20] 1998. 수능					
17	18	19	20		
⑤	④	②	⑤		

5주차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 수능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정보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大勢)로서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 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의 유형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 관계 등 사람들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사고 방식, 가치관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산업 혁명과 ㉠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뀌리라는 생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술(技術)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이나 성격이 각각 다르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조론으로 구별된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구조라든가 정부나 기업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은 변동의 기본 동인(動因)으로서 사회 변동에 자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술 결정론을 탈산업 사회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관점에 선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탈산업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면서, 정보 지식을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의한 사회 변동, 물질주의적 가치의 퇴조' 등이 미래 정보 사회의 주요 특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을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되는 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따름이라고 본다. 정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 발전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용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란 부가 가치가 높은 정보 기술을 생산과 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자본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정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의 원천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을 정보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 자체를 산업화하는 양면 전략, 즉 '산업을 정보화'와 '정보의 상품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정보 사회의 미래는 탈산업 사회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장밋빛 신세계가 아니다. 즉, 향후의 정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보 불평등이 확대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며, 직무의 탈숙련화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고, 대규모의 다국적 조직을 통하여 정부가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본다.

이처럼 정보 사회에 대한 예측이 학자들 간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망이 꼭 밝은 것만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 사회를 전혀 새로운 사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사회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갖가지 전망을 통하여 실제로 변화하게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변화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분간하는 한편,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보 사회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주체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화 및 정보 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맞는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1. 윗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사회와 산업 사회의 관계
- ② 정보 사회와 통신 기술의 역할
- ③ 정보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
- ④ 정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⑤ 정보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동의 방향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술 결정론자들은 정보 사회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 ② 정보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 관계는 산업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 ③ 탈산업 사회론자들은 정보 지식을 정보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본다.
- ④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본다.
- ⑤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에서는 이윤 획득의 원천이 다양화된다고 본다.

3.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를 비교하며 미래 사회를 전망한다.
- ② 기술과 사회의 관계와 함께 그 변화에 대한 두 관점을 비교한다.
- ③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두 관점을 비교하고 각각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 두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 ④ 생산 체계의 변화에 따라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고 한계점을 드러낸다.
- ⑤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윤 창출 구조를 설명한다.

4. 사회 구조론자의 관점에서 정보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 ②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다.
- ③ 노동자들의 힘이 위축될 것이다.
- ④ 정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⑤ 사회적 불평등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5. 윗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 ① 정보 사회로 변화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일
- ② 경제적 평등과 정보 기술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일
- ③ 우리 사회에 맞는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하는 일
- ④ 정보 사회의 진전을 위해 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일
- ⑤ 정보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

6.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 ① 비교(比較)할
- ② 대조(對照)할
- ③ 상대(相對)할
- ④ 대립(對立)할
- ⑤ 비견(比肩)할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9. 수능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나)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리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바다 북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7.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⑤ 부드럽우면서도 강한 설득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8. (가), (나)의 '꽃'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꽃을 입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꽃의 외면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 ③ (가)에서 꽃은 사랑이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꽃은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9. (가)의 3연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고쳐 쓰기를 통해 얻은 시적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 러노흔 그솨을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① 어휘를 바꾸니 시적 대상이 바뀌었군.
- ② 피동 표현을 첨가하니 화자가 바뀌었어.
- ③ 시행의 길이를 줄여서 고독의 의미를 강조했군.
- ④ 심상을 다양화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었군.
- ⑤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해 운율상의 배려를 했군.

10.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절대 가지 말라고 입을 붙잡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미련을 남기지 않고 헤어지든지 했을 것입니다.
- ② (가): 떠나는 입에게 꽃을 뿌린다는 것도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면서도 그것을 안으로 삭이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 여인들의 전통적인 정서가 아니던가요?
- ③ (나): 그런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④ (가): 입이 떠난다는 현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의 감정만으로 정리하기 힘든 게 바로 인간 아니던가요? 제가 했던 말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지요.
- ⑤ (나):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럴 경우 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 수능

(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은 시간의 성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마치 화살과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우주론적 시간’과 ‘열역학적 시간’의 두 가지가 있다. 우주론적 시간이란 우주가 팽창(膨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관련되는 개념이며, 열역학적(熱力學的) 시간이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나)

우주론적 시간, 즉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뉴턴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相對性) 이론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현재 상태, 즉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그것의 미래나 과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그 시간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는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만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역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은 뉴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 시간의 대칭성(對稱性)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에서 행성 운동을 촬영한 필름은 앞뒤 어느 방향으로 돌리거나 뉴턴의 법칙에 잘 들어맞은 것이다. 따라서 뉴턴의 법칙만 가지고는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도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열역학적 시간이란 열역학 제 2법칙으로 설명되는 시간을 말한다.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르면 자연 현상은 에너지가 무산(霧散)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도 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또는 방 안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다가 창문을 열면 밖으로 더욱 퍼져 나가는 것처럼, 자연은 최대 무질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러한 사례에서 관찰되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비가역적(非可逆的)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런 자연 현상의 진행 방향이 곧 열역학적 시간의 방향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실제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해 준다.

(라)

이러한 열역학 제 2법칙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법칙은 생명체가 탄생하여 질서 있는 조직체로 진화되어 간다는 것, 즉 진화론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단순한 생명체가 좀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질서의 정도가 오히려 증가(增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프리고진은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진화론과 열역학 제 2법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 곧 최대 엔트로피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비평형 현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자연계는 열평형 상태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비평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물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면 마지막 상태는 옅은 색 평형 상태가 되지만, 그 과정을 관찰하면 잉크가 퍼져 나가면서 만드는 무늬와 구조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속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평형 상태의 예이다. 진화론도 이와 같은 비평형 상태가 지속(持續)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열역학 제 2 법칙은 진화론과 모순 없이 양립하면서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마)

그런데 이 열역학 제 2법칙을 우주 전체에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 과정이 무한히 지속된다면,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의 상태, 즉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무산되어 더 이상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열사(熱死)’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열사의 상태가 시간의 최종 도착점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가정에 불과할 뿐, 실제 우주의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바)

이처럼 열역학 제 2법칙도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만 설명력을 가질 뿐,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뉴턴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도 또한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진정한 설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과 함께,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

11. ㉠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 ① 행성의 운동
- ② 연기의 흩어짐
- ③ 생명체의 진화
- ④ 도자기가 떨어져서 깨짐
- ⑤ 물에 떨어진 잉크의 퍼짐

12. (다)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관계
- ② 열역학 제 2법칙의 예외 사례
- ③ 시간의 대칭성과 시간의 방향성
- ④ 열역학 제 2법칙과 열역학적 시간
- ⑤ 상대성 이론과 열역학 제 2법칙 간의 모순

13. (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생명체가 진화되는 것은 질서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 ②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와 비평형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 ③ 물과 잉크를 섞으면 마지막 상태는 평형 상태가 된다.
- ④ 생명체의 진화는 비평형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이다.
- ⑤ 열역학 제 2법칙은 진화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14. (마)에서 '우주의 열사(熱死)'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이다.
- ② 에너지가 완전히 무산된 상태이다.
- ③ 온도와 밀도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 ④ 만유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다.
- ⑤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8. 수능

“너 아범은 내가 어서 죽었으면 시원할 것이다. 너도 못 오게 하느라고 저희끼리 짜고 전보까지 새에서 못 치게 한 게 아니냐.”

조부가 이런 소리를 할 제 덕기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기는 하였지마는 덕기도 의아는 하였다. 부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라 싶으나 창훈 아저씨라든지 최참봉이 부친에게 되돌아 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도 모를 일이라고 의심이 난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원집과 부친이 악수를 할 리는 없고 창훈이와 부친의 새가 금시로 풀렸을 리도 없으니 십중팔구는 수원집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농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아무리 그래야 밤이나 안 굶게 하여 주지, 그 외에는 막 무가내하다.”

조부는 이런 소리도 하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까짓 재산이 무업니까. 그런 걱정은 모두 병환 중이시니까 신경이 피로하셔서 안 하실 걱정을 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꼭 일어나십니다.”

덕기는 조부를 안위시키려고 애썼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작히나 좋으랴만 다시 일어난대도 나는 폐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금고 열쇠를 맡아라. 어떤 놈이 무어라고 하든지 소용없다. 이 열쇠 하나를 내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 놓으면 인제는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مان히 열어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금고 속에는 네 도장까지 있다마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네 도장이라도 네 손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 이 열쇠는 맡아 두었다가 내가 천행으로 일어나면 그대로 내게 다시 나오.”

조부는 수원집까지 내보내 놓고 머리맡의 조그만 손금고를 열라고 하여 열쇠 꾸러미를 꺼내 맡기고 이렇게 일러 놓았다.

“아직 제가 맡을 것이야 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병환만 웬만하시면 곧 다시 갈 텐데요! 그리고 아범을 제쳐 놓고 제가 어떻게 말습니까?”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시 간다고? 못 간다. 내가 살아난대도 다시는 못 간다. 잔소리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하고 조부는 절대 엄명이었다.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야 있습니까. 불과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공부가 중하냐? 집안 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 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 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내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 두 가지 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폭 빠졌다.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살림은 아직 아범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싫거든 이리 나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 걸식을 하든 어찌든 나는 모른다.”

조부는 이렇게 화는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 버리려고는 아니하였다.

덕기는 병인을 거슬러서는 아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서 들어온다.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 들고 일어서 버렸다.

“애 아범, 잠깐 거기 앉게.”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 놓고서 따지려는 것이어서 덕기가 성큼 넣어 버리는 것을 보니 인제는 절망이다. 영감이 좀 더 혼돈 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흔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케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 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의 움이 빨랐던지 사자의 움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 꾸밈이 어설프고 굵똥 탓이었던지? 어쨌든 인제는 만사휴의(萬事休矣)다!

- 염상섭, 「삼대」 -

15. ‘열쇠’가 덕기에게 뜻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③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가장으로서 집안을 유지·발전시켜야함을 의미한다.
- 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족쇄

16. 조부가 덕기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기의 욕심을 자극하여 회유하고 있다.
- ② 위중한 병세를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③ 덕기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치며 설득하고 있다.
- ④ 복잡한 집안 사정을 들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조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적 인물이다.
- ② 손자의 뜻을 받아 주는 것으로 보아 자상한 인물이다.
- ③ 덕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로 보아 이기적인 인물이다.
- ④ 집안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아 우유부단한 인물이다.
- ⑤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아 돈에 결벽증이 있는 인물이다.

18. 윗글을 제대로 감상하는 효과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부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 본다.
- ② 덕기의 취미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다.
- ③ 방안의 분위기가 어떠할지 생각해 본다.
- ④ 전보가 왜 덕기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추리해 본다.
- ⑤ 덕기 아버지가 열쇠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추리해 본다.

빠른 정답 - 5주차

[1~6] 1998 수능					
1	2	3	4	5	6
⑤	④	②	②	③	⑤

[7~10] 1999 수능				
7	8	9	10	
④	⑤	⑤	⑤	

[11~14] 1998 수능			
11	12	13	14
①	④	②	③

[15~18] 1999 수능			
15	16	17	18
③	①	①	②

6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9. 수능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시장 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개별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 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 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우리 삶의 질과 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 위기를 낳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민족 문화는 급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 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

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조직의 비중이 강화된다.
- ②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금융 자본의 역할이 증대한다.
- ③ 개방적 민족주의는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한다.
- ④ 세계화를 통해 민족 단위의 사회 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 ⑤ 세계화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된다.

2. 윗글의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족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한다.
- ②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 ③ 민족주의는 바람직한 국가 이념이다.
- ④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대립한다.
- ⑤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다.

3. '세계화'에 대한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인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부분적인 현상에서 유추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이론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 있다.
- ⑤ 여러 가지 정의를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4. 윗글의 글쓴이의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선진국에 대해 너무 적대적이다.
- ② 국가간의 경쟁 현상에 대해 패배주의적이다.
- ③ 초국적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군.
- ④ 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 ⑤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0. 수능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덕으로 ㉠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쿡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쿡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잇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 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쿼퀴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뉴기니아 마링 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 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싹껏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부러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5.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 문화의 중요성 강조
- ②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재인식
- ④ 물질적 풍요의 고유성에 대한 재해석
- ⑤ 서구적 가치의 지속적 추구에 대한 재평가

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여러 개념을 주관적인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 ②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바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이론적 입장을 대비시켜 주장하는 바를 개선하고 있다.
- ⑤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에 빗대어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질적 풍요에 대한 관점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 ②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문화의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③ 낭비에 가까운 소비는 공동체 존속에 위협을 가한다.
- ④ 물질적 풍요는 생태계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⑤ 한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는 불가능하다.

8. 윗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진술은?

- ① 대중 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 ② 사람에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어.
- ③ 중·고등 학생들이 이성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 ④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 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9. 다음 중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 : 간주(看做)한다
- ② ㉡ : 증가(增加)시켜
- ③ ㉢ : 추구(追求)하기
- ④ ㉣ : 인식(認識)하는
- ⑤ ㉤ : 등장(登場)시키는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아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흥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나)

슈국(水國)의 7을 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궤지 용여(容與) 흥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2〉

그러기 떴는 밧기 못 보던 피 뵈느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흥려 니와 추 | (取) 흥 거시 이 흥(興)이라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석양(夕陽)이 뷔이니* ㉢ 천산(千山)이 금슈(錦繡) | 로다

〈추(秋)·4〉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용여 흥자 : 마음대로 하자, 안겨 보자

* 뷔이 니 : 비치니, 눈이 부시니

(다)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쿨대는 ㉣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밤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얽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섧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傳說)바다에 춤추는 ㉥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스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짓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가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鄉愁)」-

(라)

하이얀 모색(暮色)속에 피어있는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가 한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우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우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외인 묘지(外人墓地)의 어두운 수풀 뒤엔
밤새도록 가느란 별빛이 내리고,

공백(空白)한 ㉦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村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어 열 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古塔)같이 언덕 우에 솟아 있는
퇴색한 성교당(聖教堂)의 지붕우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外人村)」-

10. (가)~(라)의 시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다.
- ② (나)의 '슈국'은 화자의 소망이 충족된 세계이다.
- ③ (나)의 '뫼'는 화자에게 흥취를 주는 공간이다.
- ④ (다)의 '넓은 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
- ⑤ (라)의 '산협촌'은 화자의 외로운 내면 세계를 표상한다.

11. ㉠과 ㉡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② 특정 음운을 거듭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는다.
- ③ 시상을 매듭 지으며 각 단계의 의미에 긴밀히 대응한다.
- ④ 반복의 효과를 바탕으로 시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 ⑤ 연과 연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시상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한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 차라리 강으로 달려가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희고 흰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

을 : 강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강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 ① (가)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적응하여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다)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시적 화자의 시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을 그리되,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다.
- ②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리되, 노년의 서글픔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③ 자연물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여 그리움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네들을 그리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한다.
- ⑤ 불빛이 새어 나오는 초가집을 그리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14. ㉠~㉡ 중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빠른 정답 - 6주차

[1~4] 1999 수능				
1	2	3	4	
⑤	②	④	⑤	

[5~9] 2000 수능					
5	6	7	8	9	
②	③	③	③	⑤	

[10~14] 2000 수능					
10	11	12	13	14	
④	④	③	②	⑤	